



務所 앞에도 移置해 온 石塔 一基가 傳하고 있다.

恰似 慶州 四面佛 石과 같이 地面에서 突出된 岩石 前面 全部에 加工하여 佛身을 만들고 頭部와 頭光은 別石으로 올려 놓았다. 따라서 實際의 肩幅은 그다

지 넓지 않으나 그 左右의 餘地는 光背로서 利用하고 있어 얼른 보기에 肩幅이 異狀하게 넓어 보인다.

身部の 彫刻은 數條의 衣文이 陰刻되었을 뿐이고 그 線도 그다지 鮮明하지 못하다. 法衣는 通肩에 옷깃은 二條의 線으로 나타냈고 그 밑으로 弧形線 數條가 거의 平行을 이루고 있다. 두 어깨는 유난히 치켜올라갔으며 그 밑으로 右手는 不明이나 左手는 어깨앞까지 들어서 拇指와 長指를 대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右手는 或 垂下하여 이러한 手印을 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이 像은 阿彌陀如來로 보아진다. 身部右側은 바로 側面을 이루고 있으나 左側은 若干의 餘裕가 있어 上下로 一條의 陽刻太線이 있는 것을 보면 光背를 彫刻하였던 것 같으나 회미하다.

頭部는 頭光이 附着된 別石이다. 肉髻는 比較的 적으며 素髮이다. 굵은 兩眉가 半月形을 그렸고 좁은 이마 兩眉間에 白毫가 붙어 있다. 두 눈은 半開正眼하였으나 兩眉에 바싹 올라가 붙어 있다.

鼻梁은 날카롭지 않으나 매우 길다. 口脣은 가장 손질을 많이 한 것 같으나 거의 인중을 볼 수 없을 만치 코밑에 바싹 붙어 있다. 顔面이 比較的 깊어서 兩耳도 길다. 짧은 목에는 三道가 보인다. 두 눈은 위로 치우치고 印은 밑으로 내려와서 그 사이는 空間으로 남아 있어 괴상한 얼굴이

되었다. 따라서 코는 必要以上으로 길어져서 역시 均衡上 좋지 않다. 光背는 大部分 破損되었고 後頭部에 若干 남아 있으나 그다지 크지 않고 彫刻도 明瞭하지 않다.

全體적으로 매우 怪異한 感覺을 주며 顔面은 마치 무슨 神呪像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니 그 彫刻手法이라든지 岩石을 다룬 솜씨로 보아 그 製作은 高麗期에 두어야 할 것이며 末期에 가까운 造像으로 생각된다.

- 全高 三七八 cm
- 頭高 一三二 cm
- 頭光幅 一五〇 cm
- 肩幅 二三七·五 cm
- 顔幅 九五 cm

資料

八部衆像의 彫刻石 一例

張南植

月城郡 見谷面 上邱里 二區 (가마골部落)에서 東北으로 約 1 km 皆呈山(俗稱개정뱅이)에 見谷面 南砂里 李德八氏 先祖墓床石으로 뒤집어 놓여 있는 彫刻石은 花崗石이며 直徑 一〇四 cm, 高 二四 cm, 一邊幅 四四 cm 八角形으로서 各側面에는 眼象이 있고 그 안에 豐滿優雅한 手法으로 各其 모양을 달리한 八部衆像이 一軀씩 陽刻되어 있으며 底面 中心部에는 長 五二·五 cm 廣 一五 cm 深 〇·九 cm의 長方孔이 뚫려 있다. 彫面의 磨滅이甚하고 風化로 脫落되어서 全貌를 正確히 判斷하기는 困難하나 一面에는 龍頭神이 左手에 藥珠를 가졌고 다른 一面에도 劍을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두 옷맨 띠(帶)가 양쪽으로 휘날리는 것이 勇猛스러운 氣運에 넘친다.